주민 A 씨 알리 익스프레스서 정체불명 택배 30여 차례 배송받아빈 상자부터 여성 드레스까지 각양각색불편 호소하다 경찰 수사 의뢰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대표적인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정체불명의 택배 상자가 반년 넘게 한 세대에 배송되자 당사자인 시민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6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구 주민 A 씨는 자신의 집에 배송되는 정체불명의 택배에 대해 진상을 밝혀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정체불명의 택배 상자를 30여 차례 받았다.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배송된 택배 상자는 대부분 비어 있었고 간혹 드레스가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본격적인 수사 전 내사를 통해 우선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다. 현재 경찰은 알리 익스프레스 한국 고객센터 측에 주문자 정보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경찰은 알리 익스프레스가 A 씨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년 전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물건을 2차례 구매한 바 있다. 당시 A 씨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현재 택배 오류가 발생했다는 추측이다.다만 알리 익스프레스가 해외 쇼핑 플랫폼인 데다 한국 고객센터 측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진상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 고객센터는 본사에 해당 문제를 문의하겠다고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 관계자는 “우선 택배 배송 관련 담당 부서나 인물을 특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해외 쇼핑몰이다 보니 국제 공조 수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